

만화잡지를 통한 시대 읽기(2)

- 《보물섬》(1982.10~1992.10)의 게재작품과 작가를 중심으로* **

서 은 영 ***

-
-
- I. 들어가며
 - II. 게재작품 통계 및 분석
 - 1. 연재작품 선정 기준과 분석
 - 2. 단편작품과 참여작가 및 분석
 - 3. 해외 번역·번안 만화
 - III. 참여작가 통계 및 분석
 - 1. 참여작가의 연재작품 수와 연재 횟수
 - 2. 여성작가의 연재작품 수와 연재 횟수
 - 3. 신인작가 공모전과 「신인마을」
 - IV. 나가며
-
-

국문 요약

이 글은 1980년대 아동·청소년 만화잡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보물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통계 분석을 시도했다. 수치화된 자료로 《보물섬》의 성격이 가시화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그로 인해 이 글이 《보물섬》 연구, 더 나아가 만화잡지사 연구의 기초토대 자료로 활용되도록 구성했다. 이 글은 1982년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호까지의 《보물섬》의 10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재작품과 단편작품, 해외 번역·번안만화를 추출했고, 참여한 작가 목록을 선별한 뒤 수치화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만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71119)

** 이 논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카이브사업팀의 도움으로 작성될 수 있었다. 만화자료 수집과 보존 및 DB작업, 연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주신 아카이브 사업팀에 감사드리며, 특히 실무자인 김태훈 팀장님과 최은영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연구원,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잡지인 《보물섬》의 취지와 성격이 드러났고, 이를 만화사적 맥락에서 몇 가지 경향성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우선 《보물섬》 10주년 동안 연재된 작품의 목록은 총 174편이다. 명랑물, 스포츠물, 공상과학물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에 따르면 1980년대는 ‘명랑의 시대’였다. 또한 1990년을 전후해 스포츠물과 공상과학물이 자리를 교체했다. 그와 동시에 작가 세대교체와 잡지의 성격 변화도 이루어졌다. 이 글은 《보물섬》에 참여한 남성만화가와 여성만화가의 작품수와 연재횟수를 집계했고, 《보물섬》이 시행한 신인만화공모전과 「신인마을」 코너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했다.

《보물섬》의 작가와 작품 통계는 《보물섬》의 초창기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변모하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보물섬》은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혁신호 단행을 시행하지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92년 10월호인 10주년 특별호는 이전 호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글의 분석 결과 창간호부터 “재미와 유익함”이라는 전략적 이중성을 취하던 《보물섬》은 점차 재미, 곧 상업잡지의 성격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제 《보물섬》은 창간호부터 내세운 유익함보다는 재미우선주의, 상업주의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시류 속에 놓여 있었다.

주제어: 보물섬, 만화잡지, 독자, 소년소녀문화사, 아동, 청소년, 1980년대

I. 들어가며

《보물섬》은 전성기를 맞이했던 1980년대의 아동·청소년 문화사의 한 측면을 들여다보는 기초토대로서 중요한 사료임이 분명하다.

《보물섬》은 1982년 10월 창간하여 1993년 2월까지 월간지로 발행되었다. 그 후 1993년 3월부터 격주간지로 전향되었으며 다음 해인 1994년 8월부터는 잡지명을 《빅보물섬》으로 바꿔 다시 월간지로 부활했다가 1996년 《보물섬》으로 환원하는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이렇듯 여러 번의 지면 단행을 겪었으나 디지털 기기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종이잡지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결국 《보물섬》은 1996년 9월, 최종 폐간되었다. 당시 여느 잡지들이 그렇듯이 《보물섬》 역시 여러 부침 끝에 폐간되었다. 하지만 근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휴재 없이 발행되어온 최장기 만화전문잡지인 만큼 《보물섬》은 만화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섬》 연구는 2019년에 진행된 서은영의 논문이 유일하다.¹ 서은영은 이 논문에서 《보물섬》의 창간을 중심으로 만화를 도구로 한 출판사의 상업적 재편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길항하여 ‘만화읽기’라는 독서문화사의 일면을 구성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만화전문잡지, 게다가 ‘만화가 불량하다’는 담론이 거세던 시절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읽기로서 만화잡지의 탄생이 가능했던 배경을 조명하고 있다. 서은영은 《보물섬》이 1960-70년대 문학선·전집이나 아동잡지가 표방한 ‘교양의 시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보물섬》은 “재미와 유익함”, “흥미 있으면서 건전한 내용”을 표방하며 건전한 만화

¹ 서은영(2019), 〈만화잡지를 통한 시대읽기(1)-『보물섬』의 창간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5호.

읽기 문화운동을 앞장서는 매체로서의 전략을 취하며 아동·청소년 독서문화사의 한 축을 담당했다.

《보물섬》이 아동·청소년 독서문화사의 한 축을 담당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연구성과들이 나오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서은영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독서문화사 연구는 정전화된 출판문화에 국한된 경향이 여전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문학선집, 소년소녀 문학전집, 청소년 세계고전전집, 과학소설전집 등 소위 ‘명작’, ‘고전’, ‘문학’, ‘과학’의 자장 안에서 ‘교양’, ‘건전’을 표방한 문화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의 성실함으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만화 독서문화사 연구는 공란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독서문화사의 한 축에 만화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기에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만화잡지에 관한 연구 성과가 미약하나마 도출되었다. 백정숙은 그동안 실물이 없어 연구가 어려웠던 『만화학생』 잡지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했다.² 그는 1956년을 “아동만화잡지 봄의 해”로 규정하고 전쟁으로 곤궁한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아동만화잡지의 경쟁이 치열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진단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만화학생》이 195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잡지는 아니더라도 잠시나마 만화잡지 봄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기현은 1955년부터 1965년을 “만화잡지 전성시대”로 규정하면서 《만화세계》, 《만화학생》, 《만화 소년소녀》의 내용과 구성을 서술하고, 단행본, 만화잡지, 대본소가 공존하던 시기에 만화잡지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³

² 백정숙(2019), <《만화학생》을 통해 1950년대 아동만화잡지를 돌아보다>, 《근대서지》 20호.

이들의 선행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아동·청소년 만화잡지를 소개하고 만화사의 맥락에서 이들 잡지의 의미를 찾으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만화잡지사 연구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 만화를 통한 독서문화사를 구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문학이나 여타의 출판 자료에 비해 만화는 독자층, 독자 성격, 독자 요구, 판매량 등 소비주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만화잡지가 단행본에 비해 상당량 보존되어 있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며, 잡지 내에 기사, 독자문답, 애독자카드, 독자평론 등 다양한 애독자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만화 독서문화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연구하는 데 효과적인 텍스트다. 따라서 만화잡지의 작품분석을 비롯하여 매체전략, 수용자 연구, 통계학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인 아동·청소년 만화잡지 자료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은 것이 연구부진의 결과를 가져왔다. 만화는 그 특성상 이미지 저작권의 한계로 자료조사와 분석이 쉽지 않다. 실물을 보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료조차 접근이 어렵다. 작가와 협약기관 사이의 저작권 협약이 미흡하고, 여러 주체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쉽지 않아 연구 대상 접근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보물섬》의 경우 자료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현재 만화잡지 《보물섬》의 실물이 소장된 곳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파악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982년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호까지의 《보물섬》과, 《빅보물섬》 1995년 2월호를 소장하고 있다. 한국만

³ 윤기현(2021), 〈1955-1965년 단행본, 만화잡지, 대본소의 공존시대〉,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63호.

화영상진흥원은 만화의 문화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하고 만화자료의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을 짐작해 오랜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보존을 해왔기에 가장 많은 만화자료들을 소장할 수 있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보물섬》 1992년 1월호와 대부분의 《빅보물섬》은 미소장 상태다. 발행사인 육영재단의 경우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서지사항조차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물확인이 어려워 자료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4년 8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빅보물섬》의 디지털자료만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물섬》을 비롯한 만화잡지 연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도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82년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호까지의 《보물섬》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만화잡지 《보물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해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현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보물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차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 이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작가와 작품명, 그리고 연재페이지 정도다. 《보물섬》에 게재된 작품의 편수와 작가의 참여정도, 장르정보, 내용과 특성 등이 일람되지 않아 유의미한 정보를 산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간단한 서지정보로는 《보물섬》의 전체를 조망하기는커녕 내재적 변화나 편집방향조차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목차정보에는 순수창작품과 해외 번안·번역 작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카툰과 단편만화, 신인만화코너에 참여한 일부 작가의 기재가 누락되기도 하는 등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82년 10월호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호까지 10년 동안 《보물섬》에 게재된 작품들을 수합·

정리하여 통계학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제공하는 1차 자료는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물섬》에 연재된 연재만화와 단편만화 작품의 목록과 수, 참여 작가의 빈도와 연재횟수, 신인작가의 등장과 활약, 번안·번역작과 순수창작품의 데이터를 수합·정리하였고, 이를 수치로 집계하였다. 또한 이 글은 더 나아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물섬》의 성격을 분석하고, 여러 통계자료와 수치가 지니는 의미를 추적하여 《보물섬》이 1980년대 만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게재작품 통계 및 분석

1. 연재작품 선정 기준과 분석

1982년 10월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까지 《보물섬》에 게재된 연재작은 총 174편이다. 정량적 집계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이 작품 편수는 코믹스(Comics)를 대상으로 집계했다.⁴ 코믹스는 대체로 4칸 이상이 연속된 끈의 형태로 이루어져 이야기가 이어지며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코믹스는 한 회차로 완결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에 걸쳐 연재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최소 2회 이상 연재’라는 기준을 두었다. 이는 연재작과 단편작을 구분해 《보물섬》이 주력하고자 했던 연재작의 편수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코믹스는 한 회차로 끝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캐릭터가 다음 회차에도 등장해 새로운 에피소드로 전개하기도 한다. 이야기의

⁴ 코믹스(Comics, Comic Strip)란 인쇄술과 교통망이 발달하고 대중독자가 등장한 19세기 이후 출현한 만화 양식으로 오늘날 ‘만화’, ‘웹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만화 단행본들을 ‘코믹북(Comic book)’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믹스와 만화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은영(2012), 〈한국 ‘만화’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26호, pp. 101-128 참조.

연속성은 한 회차로 끝났지만, 동일캐릭터와 세계관의 연속성이 동일 작품의 연결성으로 인지되기에 회차가 거듭됨에 따라 이야기가 나아가지 않더라도 작가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코믹스다. 따라서 《보물섬》이 「단회만화」로 게재한 경우지만 최소 2회 이상의 연결성을 보여준 코믹스는 연재작품 편수에 포함했다. 이정문의 <심술쟁이>(84.7-84.9), 오원석의 <능글이>(84.7-84.9), 최경탄의 <고추장군>(84.9-84.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제목이 변경되었다할지라도 하나의 기획으로 동일한 캐릭터와 세계관이 반복되고 이야기가 전 회차의 에피소드와 연속된 경우에는 동일작으로 간주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작품들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표작 한 편만 집계했다. 예를 들어 김영하의 <안녕, 도련님>과 <왈가닥 새아씨>는 동일작으로 간주해 한 편으로 집계했다. <안녕, 도련님>은 마지막 회차에서 2부 시즌제를 예고했고, <왈가닥 새아씨>의 1회차에서는 “2부 1회”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작품의 연결성 차원에서 동일작으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⁵ 이보배의 <내 사랑 깨몽>과 <내 짝꿍 깨몽>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동일작가, 혹은 동일출판사가 하나의 주제로 시리즈로 기획해 연재하는 경우에도 한 작품으로 간주했다. 이성박의 <세계의 위인>, 최철봉의 <그림소설>, 마블코믹스의 <단회로 끝나는 세계명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 명의 작가가 작품을 담당하고 있고, 위인

⁵ 김영하의 <고봉이와 페페>(82.10-85.9), <펭귄동자>(88.1-90.6), <펭귄라이킹>(90.7-92.10)은 페페와 최고봉이라는 캐릭터와 세계관이 연속된다는 점에서 스핀 오프(spin off)작품으로 간주해 별개의 작품으로 집계했다. 세 작품에서 펭귄이 이전 작과 동일하게 등장하며 세계관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펭귄라이킹>에서는 최고봉 대신 라이킹이 등장하며, <고봉이와 페페>가 장르적으로 ‘반공’을 표방했다면 <펭귄동자>와 <펭귄라이킹>은 ‘명량’을 표방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외전으로 간주해 따로 집계했다. 또한 《보물섬》 편집부 역시 <안녕, 도련님>과 <왈가닥 새아씨>, <내 사랑 깨몽>과 <내 짝꿍 깨몽>처럼 전 시즌의 2부 형식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별 작품으로 판단하는 데 유효했다.

전기를 연재하면서 한 회 차의 대상만 달리할 뿐 동일한 형식과 기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아래 작품들은 대표작만을 각 한편으로 집계했다.⁶

연재기간	작품명	작가명
82.10-84.6	땡땡의 모험 ①티베트편(82.10) ②리콘호의 비밀(82.12)③ 붉은 락캄의 보물(83.3) ④갈매기 섬(83.7) ⑤ 대왕의 옥새(83.11) ⑥태양신의 포로 (84.3-84.6)	원작: 에르제 번역: 보물섬 편 집부
82.10-83.6	세계의 위인 ①인간 처칠(82.10-82.12) ②노벨(83.1-83.2) ③신동 모차르트(83.3-83.4) ④나이팅게일 (83.5-83.6)	이성박
82.10-83.6	그림소설 ①무신장군 임경업(82.10-82.12) ②조국을 지킨 명장 강감찬(83.1) ③이조의 명장 권율(83.2-83.3) ④고구려 명장 을지문덕(83.4-83.6)	글: 구석봉 그림: 최철봉
82.10-82.12	학습(과학실험)만화	황석
84.6-84.12	단화로 끝나는 세계명작 ①몽테크리스토 백작②아이반호③프랑켄슈타인 ④풍운의 젠다성⑤왕자와 거지⑥크리스마스 캐 럴	마블엔터테인먼트 트와 독점계약 번역: 《보물섬》 편집부
85.10-87.12	안녕, 도련님(85.10-86.12) 왈가닥 새아씨(87.1-87.12)	김영하
85.12-87.12	6.25전쟁비화 ①아버지의 철모(85.12-86.6) ②장군의 아들(86.9-87.12)	김형배
86.2-89.5	추리특선만화 시리즈 1탄 공포의 4(86.2-86.7) 2탄 배스커빌가의 개(86.8) 3탄 붉은 문자의 비밀(87.6-87.9) 4탄 붉은 바퀴(87.10-88.1) 4탄 ⁷ 죽음의 게임(88.2-88.3)	원작: 코난 도일 번안·그림:금영훈

⁶ 오세영의 <만화로 보는 전설>(88.5-88.11), <만화로 보는 역사>(88.12-89.5), <오세영의 인물극장>(88.12-89.5)은 이성박, 최철봉과 같이 해당 제목의 회차별 에피소드는 동일작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각각 전설, 역사, 위인전기라는 기획을 가지고 연재되었으므로 별개의 작품으로 간주해 편수에 포함했다.

⁷ 코난 도일의 번안작은 실제로 9탄까지 연재되었으나 《보물섬》에서 4탄을 두 번 게재함으로써 총 8탄으로 연재 종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물섬》의 명기를 그대로 따

	5탄 붉은 머리 클럽(88.4-88.6) 6탄 보히미아의 연인(88.7-88.9) 7탄 얼룩끈(88.10-89.1) 8탄 프라이어리 학교(89.2-89.5)	
87.12-91.8	내 짝궁 개몽(87.12) 내 사랑 개몽(88.1-91.8)	이보배

표 1 《보물섬》(1982.10-1992.10) 연재작품 중 동일시리즈로 간주한 작품목록

넷째 순수창작품과 번역작, 번안작을 모두 포함해 산출했다. 《보물섬》은 창간호부터 소위 ‘명작’,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번역, 번안해 여러 편 게재하면서 이를 ‘교양’, ‘건전’, ‘유익함’으로 유도하고 선전했다. 이 작품들은 잡지 《보물섬》의 매체전략과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작품 총 수에 포함했다. 또한 명작은 아니더라도 영국 BBC에서 방영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기시리즈>처럼 유명작품을 직접 번역해 게재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1982년 10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보물섬》에 게재된 연재만화는 총 174편으로 집계되었다. 그 가운데 번역·번안 연재작 27편을 제외하면 국내 창작연재작은 147편에 해당한다. 《보물섬》은 10년 동안 한 호당 적게는 17편, 많게는 21편으로 평균 20편 내외의 연재작을 게재했다.

《보물섬》은 174편에서 명랑, 순정, 시대, 모험, 스포츠, 공상과학, 탐정, 학원, 개그, 무협, 액션, 환상, 공포 등 거의 모든 장르를 게재했지만, 작품 편수로만 살펴보면 명랑만화, 스포츠만화, 공상과학만화가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공포장르는 《보물섬》 후반에 가서야

르되 실질적으로는 9탄임을 적어둔다.

⁸ 1984년 2월부터 해외만화 <요기와 신디>로 시작했다가 그 해 3월부터 <요기시리즈>로 변경해 1984년 7월까지 총5회 연재했다. <요기시리즈>에서 주인공 ‘요기’는 1958년 Hanna Barbera의 <허클베리 하운드 쇼(The Huckleberry Hound Show)>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1961년부터 <요기 베어(Yogi Bear)> 시리즈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흥행중인 작품이다.

등장한다. 그것도 장도·신비의 <공포 환타지>(1991.5-??) 정도에 그쳤다. 독서문화사에서 공포 장르가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어린이들에게 읽힐 만한 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보물섬》이 시종 게재했던 ‘명랑만화’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공포만화는 아동·청소년에게 그리 권장할 만한 장르만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랑의 빈도수는 높되 개그만화는 극히 드물다는 점, 그리고 굳이 ‘개그만화’로 기재해 명랑만화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점, 액션물 역시 많지 않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보물섬》이 이 시기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읽을거리로 명랑만화, 스포츠만화, 공상과학만화로 차별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명랑, 스포츠, 공상과학은 《보물섬》 창간호부터 10주년 기념호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특히 스포츠만화와 공상과학만화 두 장르는 각각 23편과 18편씩 게재되었다.⁹

《보물섬》에 연재된 스포츠물은 야구(8편), 축구(5편), 권투(4편), 육상(3편) 순이었다. 야구, 축구 소재의 연재물은 1980년대 내내 인기를 끄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까지도 등장했다. 이우정의 <나는 꿈이다>(씨름, 85.8-86.11), 신영식의 <성난 코브라>(격투기, 84.6-86.3), 허영만의 <잠보>(농구, 87.3-87.9)처럼 비인기종목도 연재되었지만 그 종수나 연재횟수가 길지 않았다. 《보물섬》의 스포츠만화 연재는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연재되었지만 특히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1985년과 1987년은 각각 6편, 4편의 스포츠물이 새롭게 연재되었다. 이는 다른 해에 비해 2-

⁹ 《보물섬》에 게재된 작품들은 잡지 자체적으로 장르명이 기재된 경우들도 많았으나 그렇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 존재했다. 그래서 작품의 장르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과 임의적 기준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일이었으나, 그나마 스포츠물과 공상과학물은 《보물섬》 자체적으로 장르명 기명이 거의 이루어져있었고, 장르특성이 명확하여 기명이 없는 경우에도 장르 구분이 가능했다. 한편 《보물섬》의 ‘명랑’장르는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문제적이었다. 이는 별도의 논문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어 후속 논의에서 이어가겠다.



그림 1 《보물섬》 연재 스포츠물

3배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다.

《보물섬》의 스포츠물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

춰 고취된 국민적 관심을 잡지독자로 끌어오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에 《보물섬》에 부쩍 늘어난 인기 스포츠 선수 인터뷰나 화보, 인기 만화가와 스포츠선수와의 만남 코너들이 이를 방증한다.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과 국민적 관심, ‘3S’로 상징되는 우민화정책, 그리고 《보물섬》에 게재된 스포츠 만화의 편수 증가와 인기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된 각종 기사들의 증면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이 시기의 《보물섬》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상과학만화는 총 23편 게재되었으나 그 가운데 국내 창작물은 18편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보물섬》에 게재된 국내 창작 공상과학물의 대다수가 1990년 이후 연재작이라는 것이다. 《보물섬》 초기에는 <E.T>, <21세기 오딧세이>, <우주특공대>처럼 해외 유명 SF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번안한 명작번안만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차성진의 <은하전사 파이엑스>를 시작으로 공상과학물 11편이 순차적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보물섬》에 게재된 공상과학만화의 절반 정도가, 그리고 공상과학 국내창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1990년대에 집중되었다. 차성진, 금영훈, 배금택, 이보배 등 기성작가들의 연재도 있었지만, 이상철, 김종한, 김철인, 김준범, 이영석, 야고보 등 신진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또

한 <무인전투로봇 C.C.R>(90.11-91.6), <소년 로보캡>(91.9-92.5), <철갑마왕>(92.2-92.7), <킹 라이브맨>(92.3-??)과 같은 메카닉물(로봇물)의 연재빈도수가 높았다.¹⁰ 이는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는 로봇메카닉물, 거대로봇물에 관한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기에 《보물섬》에는 스포츠만화와 공상과학만화의 인기가 교차한다는 것이다. 1990년으로 접어들면서 스포츠만화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공상과학만화는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¹¹ 스포츠만화의 자리를 공상과학만화가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단편작품과 참여작가 및 분석

《보물섬》은 카툰, 코믹스를 포함하여 국내작가뿐 아니라 외국 작가의 작품을 전채해 단편으로 게재했다. 우선 1회차에 끝나는 단편 코믹스에 참여한 국내 작가로는 조관제, 허영만, 한재규, 윤승운, 이현세, 김영훈 등 주로 《보물섬》에서 장편을 연재하던 인기 작가들이 게재했다.(표2) 그러나 ‘혁신호’를 단행한 1988년 이후에는 이만수, 강일화, 김문태, 강지훈, 오인목, 김인덕 등 신진작가의 단편들이

¹⁰ 1990년대 이후의 공상과학만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분야 역시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1990년대 한국 국내에서의 메카닉물의 인기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조명되어 왔을 뿐 만화분야에서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논문이 없다. 이 시기의 공상과학만화를 정리하고 창작 배경과 독자, 작품 분석과 더불어 그 위상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논의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¹¹ 《보물섬》 1991년 11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이만수의 <분노의 야구황제>의 예고편에는 “실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본격야구만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상무의 <개살구>가 1991년 6월 완결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등장한 야구 소재의 새연재작이었지만 1980년대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1990년대 스포츠만화 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로 1990년부터 1992년 10월까지 《보물섬》에 새롭게 연재된 스포츠만화는 4편, 연재중인 스포츠만화는 총 6편에 불과했다.

대거 포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물섬》은 「쉬어가는 페이지」, 「보물섬휴게실」, 「해외걸작만화」, 「지구촌만화」 등의 제명(題名)으로 여러 편의 카툰이나 2-3컷의 한 회 분량의 코믹스를 게재하는데, 국내작가로는 윤영옥, 신송균, 오룡, 박기정, 김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1960-70년대 한국만화계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시사만화와 카툰을 그리던 유명 작가들로 1980년대에도 왕성한 활동중에 있었다. 이들의 참여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활발한 빈도수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보물섬》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낸다. 즉 《보물섬》은 코믹스를 우선으로 섭외했고, 연재작 중심의 편집체제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재만화 시스템은 월간지 체제의 《보물섬》의 주된 독자층인 아동·청소년의 소비를 부추기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해외 작가로는 돈 마틴, 조지 우드브릿지, 셸시오 아라곤스 등이 참여했으나 작가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해외작품의 경우 정식 절차를 거쳐 전래한 것인지, 번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카툰, 단편 코믹스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게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물섬》에 게재된 카툰과 단편 코믹스의 면면으로 보아 《보물섬》이 작가와 작품 섭외에 꽤 신경 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적어도 1988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보물섬》 후반기로 갈수록 한국 유명 카툰리스트와 만평가의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간간히 해외 작품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대신 작가들의 단편선이 한 회차 분량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표2에서 보다시피 1989년 이후에는 단편만화 코너를 매 호 게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과 1989년, 즉 《보물섬》이 “혁신호”를 단행한 바로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재년월	작품명	작가명
1982.12	꾸러기 교실	조관제
1983.1	돌이의 무전여행	윤승운
1983.2	끝없는 투혼	이현세
1983.4	[특선만화] 하얀달무리	이상무
	[특선순정만화] 말괄량이 릴리	민애니
	[특선명랑만화] 탕구의 도깨비 성냥	신문수
1983.5	[특선만화] 동래학춤	허영만
1983.6	[특선낚시극화] 은빛 지느러미	한재규
1983.7	[특선순정만화] 푸른파도 저 멀리	이우정
1983.8	[납량특선 단편만화] 그 여름의 식물채집/ 과학의 제로 지대	한재규
1984.1	[새해맞이 특선단편만화] 도둑맞은 그림자	김민
1984.5	[해외특선] 교황요한 바오로 2세 만화	‘마블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채
1984.6	[해외만화] ET의 지구보고서	미상
1985.9	[단화만화] 꽃섬, 하늘로 가다	금영훈
1986.8-1987.7	[보물섬 인기 작가들의 특별기획 - 인기만화가 총집합 릴레이만화] 공	김동화, 김수정, 이향원, 김영하, 배금택, 박동파, 김철호, 고행석 등
1987.6	[초여름 특집만화] 혁이의 도깨비 감투와 투명인간	신문수
	[단편초대석] 꿈	강지훈
1989.7	[단편초대석] 바람과 노래하기	김진
1989.8	[단편초대석] 얼라리 꼴라리 따로	허무영
1989.9	[단편초대석] 역세계 운수 좋은 뻘한 사나이	이만수
1989.10	[특선단편만화] 비상착륙	황선나
	[단편초대석] 깨진유리	강지훈
1989.11	[단편초대석] 악몽(원작자: 프레데릭 브라운)	금영훈
	[단편초대석] 좌충우돌 5인의 현상객	강일화
1990.1	[단편초대석] 여기는 7층	오수
1990.2	[단편초대석] 뽀뽀	박문윤
1990.2-1991.4	조관제의 그림이야기	조관제
1990.3	[단편초대석] 펑키 튀기	한승원
1990.4	[단편초대석] 화색연필	글:노진수, 그림: 유영
1990.5	[단편초대석] 혼자 도는 아이	신영식
1990.6	[단편초대석] 빗물	김문태
1990.7	[단편초대석] 희망사항	이만수

1990.8	[납량특집 단편초대석] 노란국화 한송이	최준식
	[특선단편] 금동이	이시혁
	[여름방학특집 만화퍼레이드]	김진, 윤준환, 김수정 등
1990.9	[단편초대석] 도시의 허수아비	강지훈
1990.10	[창간8주년 특별단편초대석 애독 자 원작만화] 말썽도사 백차돌	원작: 최호철 각색: 이상철
1990.11	[단편초대석] 겨울나무	이만수
1990.9-1991.11	말과 글이 필요없는 김성주 카툰	김성주
1990.12	[크리스마스 특집 만화] 눈의 여왕	원작 : 안데르센 각색·그림 :최준식
1990.12	[단편초대석] 탁박사와 시간도둑	유영
1991.1	[단편초대석] 컴퓨터 데이트	이진주
1991.2	[특선단편] 유월의 끝	김형배
1991.3	[단편초대석] 환상여행	김종환
1991.4	[특선단편] 어린 꼬추	원작 : 리하르트 레안더 각색·그림 :이명신
	[단편초대석] 맹물자동차를 잡아라	탁영호
1991.5	[어린이날의 환상 단편초대석]	이만수
1991.6	[단편초대석] 악손 해동이	이희재
1991.7	[단편초대석]악마와 바보신발	이강주
1991.8	[단편초대석]두 노인	이상철
	[특선단편]나의 형은 동끼호떼	신영식
1991.9	[단편초대석] 가발소동	김영구
1991.10	[단편초대석]해골소년 망달이	오인목
1991.11	[단편초대석]1995년 항공모함 코 리호	김종한
1991.12	[단편초대석] 새벽꿈	김종한
	[신인단편] 실제상황Q	김인덕 ¹²
1992.1	[단편초대석] 카우보이의 자존심	손상헌
1992.2	[단편초대석] 겨울이야기	안철주
1992.3	[단편초대석] 지구방위가족	김진태
1992.4	[단편초대석] 치기치기	서명석
1992.5	[단편초대석] 악마 만들기	백경희
1992.5-6	[어린이달 기념 특별단편] 망달이	오인목
1992.6	[단편초대석] 차원전사	김진태
1992.7	[단편만화] 한 여름밤의 꿈	김묵

표 2 《보물섬》(1982.10-1992.10)에 게재된 단편만화

한편 1990년 10월호에 게재된 <말썽도사 백차돌>은 《보물섬》

¹² <추적황당무계>(1991.2-1991.4)연재 후 신인단편으로 단화만화 게재한 것이다.

이 창간8주년을 맞이해 시행한 이벤트다. 이 작품은 중학교 1학년생인 애독자가 쓴 스토리를 만화가 이상철이 각색한 단편작으로 일종의 ‘독자참여형’ 작품이다. 《보물섬》은 「당신도 만화가」, 「애독자숨씨자랑」, 「둘리우체통」, 「애독자펜팔코너」 등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코너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말썰도사 백차돌>처럼 독자 작품이 만화가의 손을 거쳐 정식으로 지면에 게재된 것은 유일무이하다. 오늘날 웹툰에서 독자의 사연을 만화가가 그려 플랫폼에 연재하던 ‘썰툰’을 연상시킨다. 디지털 시대 이후의 웹툰처럼 쌍방향 소통을 이루지 못했던 시절이지만 《보물섬》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독자-출판사-작가(만화가) 간 상호 친밀도를 높이고자 시도했다.

3. 해외 번역·번안 만화

《보물섬》의 1982년 10월호부터 창간 10주년까지 게재된 해외 번역·번안 연재만화는 총 27편에 이른다. 해외 번역·번안 작품의 경우 《보물섬》 창간 직후부터 1985년 사이에 종수가 가장 많고 집중 연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1991년 말까지 해외만화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물섬》 전체 장르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스포츠, 공상과학 장르와 비교해도 그 종수와 연재 횟수 모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번역·번안만화를 장르물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물섬》이 해외 번역·번안 연재작에 유독 ‘명작’이라는 표제어를 내세웠던 것을 참조한다면, 이들 만화는 개별 장르물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군(群)으로서 편집체제에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 번역·번안 만화는 국내 창작품의 장르물과 견주어 《보물섬》의 한 장르군으로서 의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일종의 ‘해외명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해외명작만화의 편수가 줄어들긴 했어

도 《보물섬》은 월간체제였던 내내 좋은 해외만화를 소개하고자 했다. 번안을 담당했던 작가들로는 이현세, 고유성, 백성민, 정영숙, 이우정, 이향원, 장태산, 이희재, 김형배, 금영훈, 김영구 등 당시 인기 만화가들이었다. 이들은 인기작가였을 뿐 아니라 각자의 주력 장르에서 호평을 받던 작가이기도 하다.

“<악동이>는 그 시대의 인식이 만화라 하면 아동만화만 할 수밖에 없던 때라 나은 작품이었지. 운명이란 게 희한해. <악동이>를 연재한 ‘보물섬’은 육영재단이 펴낸 잡지였다. 그때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였잖아. 1983년부터 <악동이>를 연재했는데 그때도 창작은 하지 말고 세계명작 같은 거나 만화로 그리라는 주문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물을 만화로 그리기도 했고, 그러다 피를 내 미국 아동소설 원작을 무대만 한국으로 바꿔 그리기로 했다. 원작도 개구쟁이 꼬마 이야기여서 한 3회까지는 원작 내용을 그대로 쓰다가 그다음 편부터 아예 독립적인 이야기로 창작을 시작했지. 나름 편법을 쓴 거야.”¹³

<악동이>를 연재했던 이희재의 인터뷰 기사다. 그는 <악동이> 연재 전에 <말괄량이 마플>(원작: <미스 마플> 시리즈)이라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각색했다. “창작만화를 그리고 싶었으나 《보물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계명작만화만을 주문했던 시절”이라는 이희재의 증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물섬》창간호는 창작만화와 소위 ‘명작’ 번안·번역 만화의 비율을 거의 대등하게 배치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내 창작물과 거의 대등한 비율로 해외 명작만화를 게재했다. <말괄량이 마플>이 연재되던

¹³ 김태훈, 〈한국만화의 거장들 : <악동이> 만화가 이희재〉, 《주간경향》1434호, 2021.7.5.

이희재는 <말괄량이 마플>을 시작으로 <악동이>에서 점차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펼쳐다가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1987.11-1989.02)를 각색했다. 이후 <꼬마 도깨비 마루>(1991.8-1993.2)에서 드디어 자신의 창작품을 연재하게 된다. 이희재는 《보물섬》초기부터 꽤 오랜 시간에 걸쳐 번안작을 해 온 셈이다.

1983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번안작 역시 국내창작품 못지않은 우수한 작가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번안작에 참여했던 김형배도 “《보물섬》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탁”을 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¹⁴ 《보물섬》은 작품선정에서부터 작가선정에 이르기까지 해외번안만화 게재에 꽤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보물섬》은 ‘명작’만화를 게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것은 ‘창간호’에서부터 《보물섬》이 주력했던 부분인데, ‘창간호’에는 총 20편의 만화 중 해외 원작을 각색하거나 전채한 작품이 9편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 작품들은 당시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있거나 세계적으로 명성을 획득한 작품들로 주로 ‘고전’, ‘명작’으로 소비되고 있던 작품들이었다. 이는 곧 교양의 상품이었던 ‘명작’의 소비를 만화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써 《보물섬》이 창간호부터 10년 동안 줄곧 추구해왔던 “유익하고 건전하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¹⁵

《보물섬》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퐁올리처상에 빛나는 감동의 실화”, “세계명작을 보물섬에서 읽자”, “세계○○”, “화제영화”, “마블 코믹스 독점계약”처럼 표제와 선전문구에서 원작의 세계적인 명성을 강조하고 권위를 앞세웠다. 드물지만 만화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1984년 8월호에 게재된

¹⁴ “《보물섬》 애들은 저한테 특집으로 아무나한테 부탁도 안 해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닥터 후>도 제가 한 두 편 연재했어요. 많은 페이지 수로, 특집이니까...근데 제 말은 그대로 그냥 《보물섬》 애들은 그 당시에 지내가 판권이 있는 양 그냥 내가 인기 있는 작가니까 부탁한 거예요. 자료까지 챙겨주면서. 그냥 그 외에도 <인디아나 존스>도 마찬가지로 수입영화사에서 판권 팔아 먹은거고, 그렇게 한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김형배 구술·김종옥 채록(2022), 《한국만화사 구술채록연구》²⁵ 김형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p. 116-118.

¹⁵ 서은영, 위의 논문, p. 262.

<단회로 끝나는 세계명작 프랑켄슈타인>의 첫 장에 아동문학가 김영자의 간단한 추천사가 그것이다. 김영자는 ‘만화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화와 소설을 비교하면서 만화야말로 긴 책도 단숨에 읽어들 수 있기에 독서의 생활화를 가능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만화의 재미와 세계 명작의 향기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이 지면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라는 찬사로 끝맺고 있다. 김영자의 추천사는 《보물섬》 창간사를 작성한 최세경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최세경 역시 만화를 “고전, 과학과 같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극화시킨 것으로 독서훈련에 적합한 매체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취지의 만화효용론은 어린이 독서문화에 중요한 답을 형성하며 1980년대 아동·청소년의 만화독서문화를 견인해갔다.

한편 해외단편작품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교황요한 바오로 2세 만화」다. 1984년 5월 4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 환영하기 위한 특선만화로 화보기사,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사와 함께 교황의 생애를 기록한 위인전기 만화가 게재되어 있다. 《보물섬》은 이 특선만화에서 “마블엔터테인먼트와의 긴급 전제 계약으로 신게 된 극화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의 참된 정신을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겨보려고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특선코너는 무려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1984년 5월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¹⁷

당시 언론은 교황 방문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점쳤다. 이에 각 언론들은 1984년 벽두부터 ‘세계평화의 해’를 맞이하여 교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미국과 교황청의 관계 개선과 미·중 관계와 교황의 외교 등 교황의 행보를 중심으로 한 세

¹⁶ 서은영, 위의 논문, p. 262.

¹⁷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두 번째 방문했으나 《보물섬》은 그의 방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계질서 변화를 집중 보도했다. 또한 교황방문을 기념하여 전두환과 교황의 정상회담과 공동발표문 선언, 한국 내 관광객 비중(외국순례자 방문)과 그에 대한 대비, 대남공격과 테러 대비, 환영 행사 준비, 각종 공식 환영기념품 제작 등 다방면에서 분주히 기사를 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보도와 당국의 움직임은 교황의 방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 질서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농후하다. 이 같은 시류에서 《보물섬》의 교황 특선만화는 실존인물의 생애사와 방문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계를 목도하는 경험을 주었다. 《보물섬》은 교황 바오로 2세 기사에서 ‘사랑’과 ‘평화’를 앞세우긴 했으나 결국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질서 속에 재편되는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계기로 이 특집코너를 게재했다. 이는 《보물섬》이 단순히 오락적, 유희적 목적을 위한 만화계재만이 아니라 “유익함”이라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한 잡지였음을 재확인하는 장면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번역·번안작품의 정식 수입절차, 즉 저작권 절차를 《보물섬》이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물섬》이 ‘독점계약’을 강조하고, 번역작과 번안작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며 원작을 명시한다는 사실에서 나름대로 출판시장의 질서를 지키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보물섬》이 전적으로 저작권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번안작 참여작가였던 이희재와 김형배의 증언에는 불법복제와 불법번안의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는 만화계의 관행이었던 해적판 베끼기의 폐해가 연일 보도되던 때이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것이 바로 1987년 10월 1일이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⁸

¹⁸ 국제저작권협약은 198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출판계가 기피해오던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드디어 1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약이 발효된다는 것은 가

Ⅲ. 참여작가 통계 및 분석

1. 참여작가의 연재작품 수와 연재 횟수

1982년 10월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까지 《보물섬》 만화게제에 참여한 국내작가는 총 124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는 순수창작과 번안작을 모두 포함했으며, 글작가로 기재된 노진수, 장도, 김우리도 포함했다.¹⁹ 이 시기에 연재작품수가 가장 많은 작가는 신영식으로 8편에 해당했다.

《보물섬》 10주년 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연재한 작가는 신영식이었다. 그는 <흑점>으로 창간호부터 참여해 1986년 4월부터 1987년 9월호 사이를 제외하고 1991년 6월호까지 빠짐없이 참여한 작가였다.²⁰

신영식은 첩보·탐정, 모험, 액션, 스포츠(격투기)와 같이 남성적이고 활극적인 작품을 주로 그렸으나 1989년 후반부터는 <뚝배기>,

맹국 104개국의 저작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되고 또한 우리의 저작권도 이들 나라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출판계가 해방이후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해적출판 행위를 끝내고 선진국의 출판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이상, 〈세계저작권협약의 발표〉, 《동아일보》 1987.10.1. 참조.

¹⁹ 이들의 작품은 노진수 글·유영 그림의 <회색연필>, 장도 글·신비 그림의 <공포 환타지>, 김우리 글·임태진 그림의 <사막의 폭풍>이다. 《보물섬》에서는 각 한 편씩 밖에 작업하지 않았지만 노진수는 이후 김준범과 함께 <기계전사109>를 출간하기도 했다.

²⁰ 신영식이 《보물섬》에 게재한 연재작품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연재 기간	작품명	연재 기간	작품명	연재 기간
흑점	82.10 -83.3	성난코브라	84.6 -86.3	배추 속 꼬갱이	90.1 -90.5
켈로작전	83.4 -83.9	스피드왕	87.10 -89.9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90.6 -91.6
추적자	83.10 -84.5	뚝배기	89.10 -89.12		

작품편수	저자
8편	신영식
5편	고유성, 김철호, 한재규, 이향원
4편	이진주, 이희재, 김형배, 김영하, 배금택, 손상현
3편	강철수, 이상무, 오세영, 이현세, 허영만, 황미나 금영훈, 이두호, 장태산, 김동화, 최신오, 박동파

표 3 작가별 연재작품 수

<배추 속 꼬쟁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처럼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그린 만화나 지구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 특히 1988년에 공해추방운동연합에 가입한 이후 후반기 작업은 환경을 소재로 한 캠페인 만화를 주로 그렸다. 《보물섬》의 후반기 작업들은 그의 관심이 환경만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²¹

작가별 연재작품 수(표3)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당대 인기작가들이 다수, 여러 작품에 장기간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여러 편의 연재작을 게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작품의 생명이 길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3의 만화가들은 《보물섬》의 인기작가였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1960-70년대부터 줄곧 인기를 끌어왔던 작가들이다. 즉 1980년대의 만화계에서는 아직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보물섬》은 전환기적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장편연재작과 단편작품을 종합해보면 1980년대까지의 《보물섬》은, 한국현대만화사의 고착화된 한 지형을 드러내주는 자료이자 만화사의 한 형태를 갈무리하는 사료의 가치를 지닌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 곧 《아이큐점프》와 《소년챔프》가 견인하는 1990년에 이르러 만화계의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그와 함께

²¹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1991년 서울 YWCA 우수만화작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만화시장도 급변한다. 이는 만화전문잡지 《보물섬》이 1980년대 후반이후 종합잡지와 만화잡지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는 과정에서도 재확인된다. 곧 《보물섬》은 앞으로 도래할 만화시장의 체질변화를 1990년대 즈음해 발간한 잡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만화가 가지는 위상의 변화도 과도기적 양태를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표3과 표4에 제시된 작가들은 《보물섬》을 견인해간 대표 작가들이다. 만화계 내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위상 또한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물섬》이 1980년대 아동·청소년 만화잡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을 환기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래의 표4는 연재 횟수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작품목록이다. 작가별 연재작품 수(표3)와 달리 한 작품을 꾸준히 게재한 작가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연재 횟수가 많은 만큼 장기간 연재한 인기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김수정의 <아기공룡 둘리>, 윤승운의 <맹꽁이 서당>, 이현세의 <야수의 전설>, 윤준환의 <꾸러기와 맹자>, 김삼의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등 상위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보물섬》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회자된다. 이현세, 이상무, 김철호가 연재작품수와 작품횟수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이 스포츠 만화라는 점에서 1980년대 스포츠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표4의 작품들의 장르를 분석해보면 ‘명랑물’과 ‘스포츠물’로 요약된다. 실제로도 전체목록에서 ‘명랑물’과 ‘스포츠물’이 높은 빈도수로 게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르 빈도수와 대표 작가들은 《보물섬》이 주조하고자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 외에 공상과

22 이현세의 <야수의 전설>은 87년 5월까지 연재되다가 작가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88년 8월 다시 재개되어 1990년 10월까지 휴재 없이 완결되었다.

23 최종 49화로 마무리되었으나 《보물섬》에서 두 번 오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는 47화로 완결되었다.

No.	작가	작품	연재횟수	연재기간
1	김수정	아기공룡 둘리	111회	83.4-92.10
2	윤승운	맹꽁이 서당	94회	82.10-90.7
3	이현세	야수의 전설	53회	83.6-90.10 ²²
4	윤준환	꾸러기와 맹자	47회 ²³	87.7-91.5
5	김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47회	86.2-89.12
6	김동화	곤충소년	44회	88.3-92.3
6	이보배	내 짝꿍 깨몽/ 내 사랑 깨몽	44회	86.12-91.8
8	김철호	뽕야뽕야	43회	87.4-90.9
9	이상무	개살구	41회	88.2-91.6
10	금영훈	코난도일 명작 추리만화	40회	86.2-89.5
11	김동화	요정핑크	38회	85.1-88.2
12	김영하	고봉이와 페페	36회	82.10-85.9
13	김형배	천공의 메신저	35회	88.1-90.11
14	김철호	그라운드의 표범	34회	82.10-85.7
15	최신오	원시소년 토시	30회	90.2-92.7
	이진주	달려라 하니	30회	85.1-87.6
	김영하	핑킹동자	30회	88.1-90.6

표 4 연재횟수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작품목록

학, 추리물, 순정만화, 모험물도 장기간 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물섬》은 인기장르물 뿐만 아니라 순정장르물의 연재도 시도했다. 이는 소년독자와 함께 소녀독자도 《보물섬》이 대상으로 삼고자 한 독자였음을 확인해준다. 김동화의 <요정핑크>, <비운이 사과이어>,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 차성진의 <풀꽃반지> 등 남성작가의 순정만화가 주로 1980년대 《보물섬》의 순정장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물섬》은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를 여타의 남성 스포츠물과 달리 ‘순정만화’로 기재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만화 읽기라는 젠더적 구분에 의한 편집부의 의도가 작동했다. 《보물섬》은 남성과 여성독자 모두를 아우르며 1980년대 만화잡지 시장을 이끌어 갔지만, 매체에 의한 젠더적 만화장르의 구분은 결국 만화시장이 양분되어 있다는 표지였다. 《보물섬》은 미처 예비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구분은 곧 순정만화잡지의 탄생을 배태한 것이었다.

서화출판사가 소녀들의 새로운 감성문화를 내세우며 1988년 11월에 탄생시킨 《르네상스》와 그보다 한발 늦게 육영재단이 1991년 11월에 창간한 《땡기》가 그 예다.

2. 여성작가의 연재작품 수와 연재 횟수

《보물섬》 창간 10주년 동안 참여한 국내 작가 124명 중 남녀 비율을 따지면 남성작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장편연재와 단편게재를 모두 포함해 《보물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여성작가는 총 12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보배, 이정애, 황미나, 김진, 황선나, 한승원, 강모림, 우양숙, 민애니, 정영숙, 이명신, 이강주가 참여했다. 그 가운데 김진, 황선나, 한승원, 민애니는 단편으로만 참여했다. 정영숙, 이보배, 이정애, 황미나, 강모림, 우양숙, 이명신, 이강주는 연재작품을 게재했지만, 이들 작가의 작품연재횟수, 작품 편수 모두 남성작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보물섬》에 꾸준히 연재한 여성작가는 남성작가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보물섬》이 순정만화를 게재하거나 소녀 독자들의 독자참여를 여러 코너 게시판에 게재하며 소녀독자를 잡지의 타겟으로 삼기는 했어도 잡지가 호명했던 주된 독자군은 확실히 소년독자였음을 방증한다. 1988년 11월, 《르네상스》가 창간되기까지 남성독자 위주의 만화시장은 아동·청소년 만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영숙은 창간호부터 해외작품을 각색한 명작번안작으로 참여했던 유일한 여성작가다. 정영숙의 창간호 작품 게재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1970년대에 《소년중앙》과 《새소년》, 《어린이 중앙》 등에서 꾸준히 명작소설의 번안만화작품을 게재했고, 이를 통해 소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작가였기 때문이다. 정영숙은 창간호에서 명작번안작에 주력했던 《보물섬》의 매체전략에 적합한 작가이자 소녀독자들을 고려한 섭외였다. 《보물섬》은 1982년 12월호에 게

재한 「이달의 만화가」에 정영숙의 화보를 수록했다.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기에서 《보물섬》은 “여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머리 앤의 정영숙 선생님”이라는 문구로 소녀독자들을 호명하고 있다. 《보물섬》은 《빨간머리 앤》을 읽는 ‘문학 소녀’와 순정만화의 미학적 연출을 좋아하는 ‘만화 읽는 소녀’를 ‘정영숙의 번안작’들을 통해 동시에 호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독자에 비해 극히 일부였을 뿐이다.

정영숙의 작품연재는 후반기까지 지속되지는 못했다. 《보물섬》에서도 황미나의 등장으로 명백한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황미나의 등장 이후 여성작가들도 일본만화를 모사하거나 명작을 번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순수창작으로 옮겨갔다. 황미나를 기점으로 소녀독자들의 형질 변화와 순정만화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황미나는 <다섯 개의 검은 봉인>, <녹색의 기사>, <태백권법>을 게재하면서 순정만화에서 액션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물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소녀독자와 소년독자층을 넘나드는 몇 안되는 작가 중 한명으로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후 황미나는 《보물섬》과 《르네상스》, 《대기》와 같은 순정만화잡지를 넘나들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작가이기도 하다.

황미나처럼 자장이 넓지는 않았지만 이보배, 우양숙, 강모림, 이강주도 《보물섬》과 순정만화잡지를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전개했다. 그 가운데 우양숙은 학원을 배경으로 한 만화를 소년 독자층과 소녀 독자층으로 구분하여 《보물섬》과 순정만화 잡지에 게재했다. 우양숙은 학생들이 실제로 겪었을 법한 학원의 일상과 청소년 독자의 감수성을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남녀독자층의 구분에 따라 잡지의 독자층을 고려해 명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놓인 작가였다. <사나이 오토방기>는 《보물섬》의 소년독자를 고려한 듯 중학생이 된 남자 주인공의 일상을 다뤘다. 황미나와 함께 이보배

역시 1980년대 중반이후 《보물섬》을 견인해간 대표적인 여성작가였다. 이보배는 주로 순정만화를 그렸지만, <이불자불 대소동>으로 환경문제를 배경으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후의 세계를 그린 SF 순정만화를 그려 순정만화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연재기간	작품명	작가
여성작가가 게재한 연재작품		
82.10-83.3	빨간머리 앤	원작: 루시 몽고메리/ 각색·그림: 정영숙
83.4-83.12	사랑의 요정	원작: 조르즈 상드 / 각색·그림: 정영숙
86.6-88.4	다섯 개의 검은 봉인	황미나
86.12-91.8	내 짝꿍 깨몽/내 사랑 깨몽	이보배
88.5-90.7	녹색의 기사	황미나
90.9-92.2	태백권법	황미나
91.3-91.4	신인마을	강모림
91.5-??	도미이야기	강모림
91.9-??	이불자불 대소동	이보배
92.3-??	사나이 오토방기	우양숙
92.6-??	악골 동태	백경희
여성작가가 게재한 단편작품		
83.4	말괄량이 릴리	민애니
86.3	파이팅, 디노!	이정애
89.7	바람과 노래하기	김진
89.10	비상착륙	황선나
90.4	핑키 튀기	한승원
91.4	어린 꿈추	원작 : 리하르트 레안더 / 각색·그림:이명신
91.7	악마와 바보신발	이강주

표 5. 여성작가 게재작품

이처럼 《보물섬》에 연재작을 게재한 여성작가들은 그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재편수, 연재횟수를 비롯하여 장르 역시 대부분 순정만화에 한정되어 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남성작가군과 달리 여성작가군에는 세대교체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보물섬》 초기에는 1960-70년대 활동했던 순정만화 작가인 민애니, 정영숙을 볼 수 있었다면 1986년 이후에는 황미나를 시작으로 이보배, 이정애, 한승원, 김진을 거쳐 1989년 《르네상스》 ‘신인 작가공모전’에 당선한 우양숙, 강모림, 이강주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순정만화 시대를 견인한 작가들로 지면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동화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그 얘기를 하려면 ‘김동화’라는 필명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히고 싶은데 초기 여성만화는 사실 한승원이 거의 다 했다. 그때의 김동화는 일종의 패밀리 네임이었던 셈이다. 처음 여성만화를 유통하던 대본소(만화방) 시절에는 작가 이름을 하나로 해서 작품을 자주 내는 게 유리했다. 당시엔 내가 출판사를 만나거나 하는 등의 대외적인 일을 맡고 작품에선 테생과 연출 정도만 맡았다. 한승원은 글도 쓰고 마지막 펜터치까지 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초기 여성만화 시절 패밀리 네임으로서의 김동화는 사실상 한승원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²⁴

김동화는 인터뷰에서 《보물섬》에 게재했던 <요정핑크>가 한승원과의 공동창작품이었음을 고백했다. 일종의 ‘패밀리 네임’으로서의 ‘김동화’는 한국 현대만화사 초창기부터 지속되어 왔던 관행이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국만화사에서는 부부 만화가나 문하생 문화에서 남편이나 유명 작가의 이름을 내걸고 작품을 출간하는 일종의 ‘브랜드 네임’이 이면에 존재했다. 이는 초창기 순정만화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 순정만화를 그렸던 여성만화가의 작품에는 만화가 남편의 이름을 앞세운 공동창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1세대

²⁴ 김태훈, 〈한국만화의 거장들 김동화 “남자들의 유쾌한 농담 그려보고 싶어”〉, 《주간경향》 1420호, 2021.03.29. 이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럼 <곤충소년> 같은 소년만화부터가 개인 김동화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김동화는 “여성만화를 그리긴 했지만 난 남자니까 여자가 될 수는 없더라. 여성이 쓰는 단어를 쓰기도 어렵고, 아무리 가는 선을 써서 그려도 여성처럼 그리긴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만화작가인 윤애경은 이를 “남자 작가의 힘이자 비즈니스”로 증언한 바 있다. 윤애경은 이것을, 남성 창작자 위주의 만화시장에서 순정만화작가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남성(남편)과 여성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제의 폐습이라고 증언했다.²⁵ ‘윤애경’, 혹은 ‘박수산’(남편) 작가명은 어느 누구의 작품이랄 것도 없이 공동, 혹은 대필로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부부작가만이 아니라 문하생 제도 하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김동화의 최근 인터뷰는 바로 이러한 만화사의 한 관행이자 폐습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비운의 사파이어>와 <요정핑크>는 ‘김동화’를 브랜드로 한 김동화, 한승원의 공동창작임을 고백하고 있다.²⁶ 따라서 《보물섬》에 기재되지는 못했지만 비가시화된 존재자인 만화작가 **한승원** 역시 《보물섬》을 대표하는 작가로 기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신인작가 공모전과 「신인마을」

	발표년월	상금	수상작		
			극화	명랑	순정
1회	1984.8	400만 원	당선작 없음		
2회	1985.9	340만 원	(입선작) 박영선, <스핑크스의 비밀>	당선작 손상현, <긴급구조대 출동>	(입선작) 박신애, <백노주 아이들>
3회	1986.10	360만 원	(입선작) 김성환,	당선작, 입선작 없음	

²⁵ 윤애경 구술·서은영 채록(2021), 『한국만화사 구술채록연구② 윤애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p. 305-307.

²⁶ 이에 대한 또 다른 인터뷰가 있어 이곳에 옮긴다.

“<우리들의 이야기>(1980년)는 한승원이 스토리를, 김동화가 그림을 담당했다. <에반제린>, <멜로디 하모니> 역시 공동창작품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는 확실하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국만화계 호령하는 최고의 스타부부 만화가 김동화·한승원>, 《조선일보》 2003.12.21

²⁷ 제4회 공모전 심사평은 홍승모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만화의 장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순, 명료함이며 유유머다. 극화부문에서도 이

			〈고산이의 우주여행〉		
4회	1987.11	360만 원	당선작 홍승모 〈소〉 ²⁷	(입선작) 강성수, 〈뛰어라 빠가살이〉	(입선작) 하은숙, 〈침묵이 꽃필 때〉

표 6 《보물섬》의 신인작가 공모전 당선작

《보물섬》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인작가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물섬》은 1984년 2월호에 “참신한 작가의 신들린 작품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로 4백만원 고료의 모집공고를 처음으로 홍보했다. 모집분야는 극화, 순정, 명랑 세 장르로 극화와 순정은 “1회분 20장씩 6회 분량으로 총 120장”이며 각각 상금 150만원을, 명랑은 “1회분 10장씩 8회 분량으로 총 120장”이며 상금은 100만원이다. 이 공모전의 당선작과 상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에서 주목할 점은 공모전이 개최된 지 불과 4회 만에 유아무야 끝난다는 사실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물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모전 홍보를 했으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당시 편집자나 작가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체크할 필요는 있다. 지금으로선 추정할 뿐이지만,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화가 소설화됨은 발에 구두를 맞추는게 아니고 구두에 발을 맞추려는 것과 같다. 당선작 <소>는 만화와 동화가 만난 듯한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독특한 그림체, 절제된 선 등 나무랄 곳이 없다. 《보물섬》이 가족잡지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른들에게 부모들의 옛 고향을 보게 하는 것 같아 더욱 추천할 만하다. 마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를 보는 듯한 충격을 느끼게 한다. 흠을 찾아낸다면 유우머 부족과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마지막 장면의 난해함이다. 작가의 능력에 무한한 기대를 걸며 지켜보고 싶다.”

《보물섬》은 이 심사평에서도 만화연출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호평했으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지의 여부를 중요시 여겼다. 참고로 이 작품은 목가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배경과 어린이와 동물 소와의 교감을 다루는 서정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결말에서 비극적 정서가 배어있다. 이 부분이 《보물섬》이 지적한 “어린이에게 다소 불편한 난해함”으로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기대를 걸 만한 신인이었던 홍승모는 안타깝게도 1988년 11월 1일, 설악산 여행도중 실족사 했다는 소식이 《보물섬》 1988년 12월호에 실린다.

심사평을 보면 《보물섬》의 기대만큼 좋은 작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보물섬》은 네 차례에 걸친 공모전에서 총 245편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그 수는 2회와 3회에서 71편으로 증가했지만 4회에서 46편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4회 심사발표호인 1987년 11월호에는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보물섬》의 신인만화 작품상에 응모한 작품수는 총 46편”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심사평을 하고 있으나 공모전 첫 회에 비해서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응모편수였다. 예심당선작 편수나 심사평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보물섬》의 공모전 심사위원과 예선통과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응모작 총수	예심작		
			극화	명랑	순정
1회	초대 심사위원 김영자(아동문학가), 극화부문 강철수, 명랑부문 윤승운, 순정부문 김동화(이상 만화가)	57편	9편	9편	10편
2회	종합 심사위원 이두호(만화가), 명랑부문 김수정, 극화부문 김철호, 순정 김동화(이상 만화가)	71편	6편	4편	6편
3회	종합 심사위원 이향원(만화가), 명랑부문 김수정,극화부문 이현세, 순정부문 이진주(이상 만화가)	71편	9편	12편	7편
4회	종합 심사위원 이우정(만화가), 명랑부문 김수정,극화부문 신영식, 순정부문 이진주(이상 만화가)	46편	7편	6편	5편

표 7 《보물섬》 신인공모전 심사위원과 응모작/예심작 편수

《보물섬》은 성별, 나이, 직업, 소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1회 공모요강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었다. 바로 ‘어린이’였다. 첫 회 심사평에서 “어린이의 내일을 생각하는 저희 재단이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좋은 작품, 보다 우수한 만화가를 찾아내자는 데 있습니다”라는 공모전의 취지는 이후에도 참신하고 재미있음(“유우

머”)을 내세우면서도 반드시 “만화로서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는 내용”이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에서도 첫 회에는 아동문학가를 내세우기도 했다. 2회부터는 만화가들로만 심사가 진행되긴 했어도 심사평에서 늘 중요하게여기는 항목은 ‘어린이를 위한 만화’였다.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이 따랐고, 이는 예심작 심사평에서도 잘 드러났다. 1회 공모전 예심에 올랐던 박홍용의 작품 <무인도>에 대한 심사평에서는 “아마튜어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솜씨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따른 작품이다. 만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터치도 신선하다. 그러나 어린이 독자를 의식하지 않은 내용과 소재가 현실도피적이고 환상적이다”는 평가로 최종 당선작에는 들지 못했다. 그 후 박홍용은 연이은 2회 공모전에서도 “아마튜어의 경지를 벗어난 훌륭한 그림”으로 평가받았으나 예심에 그치고 만다.²⁸ 박홍용의 실력은 극찬받았지만 당선작을 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보물섬》이 추구하는 어린이만화의 세계는 확고했다.

그런데 《보물섬》이 좀처럼 당선작을 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해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수준 미달작들이 대거 응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심심사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흔치 않다. “스토리 전개가 약하다”, “인물과 배경의 펜선이 투박하며 동작 묘사에 무리가 따른다”, “내용면에서는 좋은 주제에 비해 전개가 아주 산만하다”, “내용이 지나치게 지루하다”, “대사를 잘 정리하는 공부를 했으면...전체적으로 미숙하다”, “기본적으로 만화의 충분한 학습이 필요

²⁸ 박홍용은 1975년부터 박기정 작가의 문하생 생활을 하다가 1981년 <돌개바람>으로 만화계에 데뷔했으며 1986년 <백지>로 《만화광장》 ‘신인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보물섬》에서 연거푸 실패한 박홍용이 그 다음해인 1986년에 본격 성인만화 잡지인 《만화광장》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은 《보물섬》의 방향성을 예측해준다. 참고로 박홍용은 오늘날 작가주의 만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다”, “그림과 아이디어의 독창성도 결여되었다”, “멋에 치중하다보니 만화적 요소 개발이 부족하다”, “인체 데생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등 대부분의 평가들은 만화의 기초에 해당하는 지적이었다. 예심에 오른 작품이었음에도 만화의 기본을 지적하는 심사평이 많았다. 심지어 제3회 공모전의 종합평에서는 “신인에게 고도의 기술과 완벽한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작가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성실성을 타진해 본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다소 누그러진 평가를 하였음에도 한 편의 당선작도 내지 못했다. 결국 《보물섬》은 4차에 거친 신인공모전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잠시 공모전을 중단했다가 1990년 4월호부터 「신인마을」이라는 2페이지 분량의 코너를 통해 신인을 발굴, 양성했다.

게재 년월호	작품	작가	형식
1990.4	봇돌이	사목	코믹스
1990.5	맹추군/토순이	서상범	코믹스
1990.6-1990.9	아버지와 아들	강성수	코믹스
1990.10	아빠 저금통 크다, 그치? 등 3편	박영현	카툰
1990.11	실업자의 나들이	강세원	코믹스
1990.12	이야기마을 ‘장발장’ 등 2편	인규	카툰
1991.1	영리한 토끼 등 3편	인규	카툰
1991.2	콘서트장에서 등 4편	인규	카툰
1991.3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 등 3편	강모림	카툰
1991.4	팽고와 아버지	강모림	코믹스
1991.7	얼렁군	오인목	코믹스
1991.8	동네	인이	코믹스
1991.9	웃음고개	오인목	코믹스
1991.11	힘자랑	인이	코믹스
1992.3	금지된 장난	안명규	코믹스

표 8 《보물섬》 「신인마을」 게재작품과 작가 일람

「신인마을」은 《보물섬》 1990.4-1992.3까지 운영된 코너로 “신인만화가로 데뷔하고 싶은 전국 만화가 지망생들에게 이 난을 드립니다”로 시작했다. 주로 기성만화가의 문하생이나 독립한 신인작가 중에서 아직 명성을 쌓지 못한 만화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이

시기에 《보물섬》은 「신인마을」 코너 이외에도 「단편초대석」에도 유명 작가의 문하생들에게 만화를 실을 기회를 주었다.

《보물섬》의 신인공모전, 「신인마을」, 「단편초대석」은 일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했다. 손상헌, 강모림, 오인목, 김종한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물섬》에 장편연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보물섬》 신인공모전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손상헌이었다. 그는 당선작인 <긴급구조대 출동>(1986.1-1986.7)을 시작으로 <멍텅구리 특공대>(1987.7-1988.9), <특파원맘보>(1990.4-1991.9), <꿈의 나라>(1992.3-)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1992년 5월, YWCA가 주최한 「제5회 어린이 만화 우수작가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보물섬》에 꾸준하게 손상헌의 장편연재가 게재된 것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인기작가로 후기 《보물섬》시대를 견인했다.

「신인마을」에서 주목할 작가는 강모림이다. 현재 그의 프로필에서 《보물섬》게재작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가 《보물섬》에 처음 작품을 게재한 것은 1991년 3월이었다. 1989년 《르네상스》신인공모전 당선 이후, 그는 1991년 3월과 4월, 두 차례의 단편 게재를 거쳐 그 다음달인 5월부터 <도미이야기>(1991.5-??)²⁹ 장편연재를 시작하게 된다. 오인목은 「신인마을」에서 첫 게재 기회를 얻었다가 1991년 10월호 「단편초대석」으로 <해골소년 망달이>를 선보였고, 이후 <망달이>(1992.5-1992.6)로 변경해 연재했다. 또한 김종한은 허영만의 문하생으로 1991년 3월호에 단편선 <환상여행>을 게재한 후 곧이어 <프리즘>(1991.4-1991.10)을 장편연재했다. 이들은 《보물섬》이 발굴한 아동·청소년 만화 분야의 대표적

²⁹ 앞서 주지했다시피 1992년 11월 이후의 《보물섬》을 구하기 어려웠고, 인터넷 상에서 이 작품에 대한 서지정보 또한 찾기 어려워 정확한 연재종료일자를 적을 수 없기에 ‘물음표(?)’로 대신했다.

인 성과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최해온 신인 공모전과 달리 「신인마을」과 「단편초대석」은 1990년대 이후 《보물섬》의 주요 기획이었다. 1988년 《아이큐점프》를 기점으로 우후죽순 창간되는 아동·청소년 만화잡지붐은 만화작가와 원고 경쟁을 부추겼다. 《보물섬》에 연재했던 인기작가들이 대거 다른 만화잡지로 이동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이 잦아졌다. 1988년 12월에 주간청소년만화잡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아이큐점프》는 이상무, 고행석, 신문수, 김형배, 이우정, 배금택, 장태산, 김철호, 윤준환, 황미나, 이현세, 이로마 등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는 《보물섬》에 연재중이던 작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같은 해 창간되었던 《르네상스》, 《모던타임즈》는 순정만화잡지로 소녀/여성을 대상으로 표방한 잡지이긴 하나, 그간 《보물섬》에 장기 연재하던 이희재, 황미나, 이강주 등이 참여했다. 《보물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작가발굴이 중요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연재기회를 부여할 순 없다. 강모림, 오인목, 김중환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데뷔한 작가라할지라도 「신인마을」과 「단편초대석」을 거친 후 장편연재가 가능했다.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1990년을 기점으로 부활한 「신인마을」과 「단편초대석」의 신인작가 작품은 만화잡지붐 시대의 치열했던 작가(작품)경쟁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IV. 나가며

이 글은 1980년대 아동·청소년 만화잡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보물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통계 분석을 시도했다. 자료 수집과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1982년 창간호부터 1992년 10월호까지의 《보물섬》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보물섬》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통권이므로 이를 정리하

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이 글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재작품과 단편작품, 해외 번역·번안만화를 추출했고, 참여한 작가 목록을 선별한 뒤 수치화했다. 더 많은 자료가 추출되었고 이를 제시하고 싶었으나 지면의 한계상 이 논문에서는 작품과 작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보물섬》에 게재된 기명들을 우선적으로 따랐고 가공은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성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분석들을 시도할 수 있었다.

《보물섬》 10주년 동안 연재된 작품의 목록은 총 174편이다. 여러 장르들이 시도되었지만 그 가운데 명랑만화, 스포츠만화, 공상과학만화 순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에 따르면 1980년대는 ‘명랑의 시대’이기도 했다. <맹꽁이 서당>, <아기공룡 둘리>와 같은 명랑만화의 연재 빈도수가 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랑’이라는 기명을 수시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90년을 전후해 스포츠와 공상과학이 자리교체를 했다. 스포츠만화와 공상과학만화의 편수와 작가가 1989년과 1990년을 기점으로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작가 세대교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창간호부터 “재미와 유익함”이라는 전략적 이중성을 취하던 《보물섬》은 해외 명작 번역·번안 만화를 의도적으로 다수 배치했다. 원작이 있는 해외 번역·번안물이 장르가 될 수 없음에도 《보물섬》 초창기엔 유독 해외 번안물과 국내창작물의 비중을 거의 대등하게 배치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명작’이라는 미명하에 유익함을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이것은 1980년대 내내 《보물섬》의 매체전략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해외 번역·번안작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만화사의 맥락에서도 변혁의 시대를 거치고 있었다. 만화사적으로는 치열해진 만화잡지 시장의 경쟁과 본격화한 여성/소년 만화독자 시장의 가시화, 새롭게 도입된 일본 잡지 시스템으로의 적

응, 급증하는 일본만화 작품과 독자들의 호응, 정부의 세계저작권협약체결 등이 만화시장의 체질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보물섬》은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혁신호 단행을 시행하지만 다가오는 파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992년 10월호인 10주년 특별호는 이전 호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육영재단이 1991년 11월에 《땡기》를 창간하고, 1993년 3월 이후 여러 번의 지면단행을 시행한 것은 더 이상 《보물섬》으로 시대를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제 《보물섬》은 창간호부터 내세운 “유익함”- 만화는 독서 습관을 갖게 한다, 만화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전달한다, 만화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좋은 방향으로 지도한다 등-은 사라지고 재미우선주의, 유머본질주의, 만화상업주의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보물섬》이 줄곧 주장하던 만화효용론의 변질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 글은 《보물섬》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 편수와 연재횟수를 집계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성작가의 참여와 신인작가 코너다. 남성작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세대교체가 여성작가에서는 발생하고 있었다. 민애니, 정영숙과 같은 1세대 순정만화 작가들이 사라지고 만화 시장에서 본격적인 여성 소비주체의 시대를 이끈 여성작가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1986년의 황미나를 기점으로 전후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황미나, 이보배, 강모림은 《보물섬》에 적극 참여한 만큼 소년만화잡지와 소녀만화잡지를 넘나들며 독자의 스펙트럼을 확산했던 작가였다. 《보물섬》이 시행한 신인만화공모전은 만화의 기본자질을 따지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만화’라는 《보물섬》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확실히 《보물섬》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 만화잡지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확고한 취지를 방향성으로 내세웠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작품과 작가 통계를 산출해 《보물섬》의 10년사를 구체

적으로 가시화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풍문처럼만 떠돌던 잡지 《보물섬》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보물섬》이 지향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도출했고, 잡지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데이터와 논문이 아직은 《보물섬》의 전체를 망라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면의 한계상 더 많은 데이터를 담지 못했다. 이것은 이 글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만화잡지사 연구, 각론으로는 《보물섬》 연구에 첫 발을 떼어 내는 일 자체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을 통해 차츰 풀어낼 예정이다. 회가 거듭할수록 《보물섬》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잡지가 1980년대 만화사, 더 나아가서 전체 만화사 맥락 안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꽤 흥미로운 부분들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아동·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잡지였던 《보물섬》이 호명한 소년·소녀들이 드러나고, 어떠한 소년문화를 주조하고 있었던 것을 일괄해 볼 수 있는 기초토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형배 구술·김종옥 채록(2022), 《한국만화사 구술채록연구^㉕ 김형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윤애경 구술·서은영 채록(2021), 『한국만화사 구술채록연구^㉔ 윤애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논문

- 백정숙(2019), 〈《만화학생》을 통해 1950년대 아동만화잡지를 돌아보다〉, 《근대서지》 20호, pp. 350-364.
- 서은영(2012), 〈한국 ‘만화’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26호, pp. 101-128.
- _____(2013), 〈한국 근대만화의 형성과 문화적 의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2019), 〈만화잡지를 통한 시대읽기(1)-『보물섬』의 창간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5호, pp. 243-272.
- 윤기현(2021), 〈1955-1965년 단행본, 만화잡지, 대본소의 공존시대〉,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63호, pp. 261-286.

정기간행물

- 〈세계저작권협약의 발표〉, 《동아일보》 1987.10.1.
- 김태훈, 〈한국만화계 호령하는 최고의 스타부부 만화가 김동화·한승원〉, 《조선일보》 2003.12.21.
- _____, 〈한국만화의 거장들 김동화 “남자들의 유쾌한 농담 그려보고 싶어”〉, 《주간경향》 1420호, 2021.03.29.
- _____, 〈한국만화의 거장들 : <악동이> 만화가 이희재〉, 《주간경향》 1434호, 2021.7.5.

■ Abstract

Reading Times through Cartoon Magazine (2)*: Focusing on the Published Works and Authors of "BOMUL SOM" (1982.10–1992.10)

Seo, Eun-Young (Hanyang University in ERICA)

This article constructed the basic data of "BOMULSOM" and attempted statistical analysis. It also aimed to visualize the character of "BOMULSOM" as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this article was organized to be used as a basic foundation for the study of "BOMULSOM" and furthermore, the study of cartoon magazine history. This article covers the first issue of 1982 to the October 1992 issue. The 10th anniversary of "BOMULSOM" is a monumental authority. "BOMULSOM" was in its heyday as a children's and youth cartoon magazine in the 1980s.

This article extracted serial and short works, foreign translated and adapted comics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Then, a list of participating writers was selected and presented as statistical data. Through this work,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BOMULSOM", a specialized cartoon magazine aimed at children and adolescent readers, were revealed. Based on this, this article made "BOMULSOM" meaningful in the context of cartoon histor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8071 119)

First of all, the list of works that were serialized during the 10th anniversary of "BOMULSOM" totaled 174. It was followed by cheerful comics, sports comics, and science fiction comics. According to the tally, the 1980s was an era of prosperity. It also replaced the positions of sports and science fiction comics starting in 1990. At the same time, a generational change of writers took place.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nature of the magazine. Meanwhile, the article counted the number of works and the number of serialized works of male and female cartoonists who participated in "BOMULSOM". It analyzed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new comic contest and the "Shinin Village" section conducted by "BOMULSOM".

"BOMULSOM" changed from an informative cartoon magazine to a commercial magazi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BOMULSOM" ran the newspaper twice, in 1988 and 1989. However, it failed. From its inaugural issue, "BOMULSOM" took on the strategic duality of "fun and informative." However, it gradually shifted to fun, soon the character of a commercial magazine.

(Key Words: BOMULSOM, Comic Magazine, a Children's Magazine, Reader, Children, 1980's)

논문투고일 : 2024년 2월 27일

심사완료일 : 2024년 4월 10일

수정완료일 : 2024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8일